

노동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pp.93~116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0.20.4.004>

연구논문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

이영석**
송선혜***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우려되었던 다양한 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도시는 청년 인구가 지속해서 유출됨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실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높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 둘째, 여전히 비수도권의 청년 노동력 유출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지역이동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컸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 취업, 전문교과 등이 취업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핵심용어: 고졸 취업자, 지역이동, 지역소멸, 고졸 취업 활성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II

논문접수일: 2020년 7월 31일, 심사의뢰일: 2020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2일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수행한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착 모델 기본 계획 수립’ 제3장을 수정·보완하였다.

** (제1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kkjj066@krivet.re.kr)

*** (공동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ssh@krivet.re.kr)

I. 서론

경제발전에 따라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은 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서울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지역 인구감소를 가속하여 지역의 생존 문제와 연결되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수 0.5 미만의 소멸위험단계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75개에서 2019년 97개로 증가하였다(이상호, 2018, 2019). 한국은행 전망에서는 소멸위험 지역이 2030년에 185개, 2040년에 217개로 늘어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95.2%)가 소멸위험 지역이 된다고 하였다(한국은행, 2017).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20대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이 효과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청년고용 이슈를 지역소멸과 함께 회자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상립, 2014; 안수란, 2019).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등의 정책으로 청년 취업,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부산시는 ‘취업처 발굴-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관리 서비스(일명 다잡고(多-JOB-GO))’를 실행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지역이동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고졸 취업자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지역이동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에 관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료 분석, 사용변수 정의,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노동의 지역이동은 노동력을 유인하는 요소의 지역적 차이에 기인한다(전재식, 2002; 김정년, 2010). 노동력의 지역이동은 이중노동시장, 직무경쟁이론, 비용·편익 비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1차 노동시장과 그에 반대되는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한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Doeringer and Piore, 1971). 이를 공간적 측면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시장 격차는 임금 수준,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과 정규직 비중 때문에 발생한다(문영만·홍장표, 2017).

한편, 직무경쟁이론(Thurow, 1972)에 따르면 직무기술은 실제 업무과정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으며, 개별 직업의 직무는 직업훈련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직무의 수와 직무의 질, 임금수준 등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구직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본다(박천수, 2005). 즉, 이미 노동시장에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정해져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자리 혹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동을 선택하게 된다.

Borjas(1992)는 지역이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간의 비교를 통해 편익이 더 크면 지역이동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비용과 편익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단순히 지역 간의 임금 격차나 장래 소득과 같은 금전적 부분뿐만 아

나라 기존 거주지에 대한 익숙함과 인간관계 등 비금전적 부분도 포함한다(김경년, 2010; 강동우,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청년층의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에 대해 주로 일자리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윤윤규 외, 2017; 이찬영·이홍후, 2016). 대표적으로 윤윤규 외(2017)는 시군구별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증가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노동시장의 높은 기대임금이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산업의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비용이 비쌀수록, 문화기반 시설이 많을수록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찬영·이홍후(2016)는 2001~14년간의 지역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5~29세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윤윤규 외(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취업 여건과 주거비용 뿐만 아니라 결혼 가능성, 문화적 혜택 등 비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임금과 취업률이 높을수록, 주거비용이 낮을수록 지역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000년대 후반부터 주거비용 부담이 커져 지역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고학력 인재유출을 살피고자 대졸 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이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김안국, 2005; 류장수, 2005; 문남철, 2010; 심재현·김의준, 2012; 박성익·조장식, 2019). 이 중 심재현·김의준(2012)은 대졸 취업자를 직장 소재지,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라 분류하고 잔류형, 회귀형, 유출형, 역내완결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임금, 고용안정성, 기업규모, 대학특성, 연령, 성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박성익·조장식(2019)은 2014년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인력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유출 요인을 분석할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변량 표본선택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성별, 연령, 4년제 대학 여부, 전공계열, 학점, 자격증, 부모 소득, 지역 및 기업특성 등이 인력유출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고졸 취업자 대상의 지역이동 연구는 중요성 간과,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기존 고졸 취업자 대상의 지역이동 연구는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경년, 2010; 류장수·조장식, 2016). 김경년(2010)은 전문계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특성과 지역이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문계고 졸업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건강상태, 자격증, 직업훈련 등이 지역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생의 지역이동은 더 나은 고용·임금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성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직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류장수·조장식(2016)은 2013년도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HSGES)」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지역이동 경로와 주요 취업 특성을 기술하였다.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경로와 주요 취업특성을 파악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자의 60.9%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잔존율은 수도권 97.7%, 지방 91.6%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권역 내 직장 취업률이 매우 높으며, 계열에 따라 지역이동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지역의 고학력 인재유출 관점에서 대졸 취업자의 지역이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에 따라 청년층 지역산업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형한(2020)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는 고졸 취업자이지만, 미충원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은 고졸자였다. 또한, 고졸 취업자는 다른 학력에 비해 지역잔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6~2018년에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졸 취업자의 지역잔존율이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친화적인 인력’¹⁾인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윤형한, 2020).

고졸 청년이 지역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에게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지역이동 요인을

1) 윤형한(2020)은 다른 학력자에 비해 지역잔존율이 높은 고졸 취업자에 대해 ‘지역 친화적인 인력’이라 표현하였다.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실증한 연구는 김경년(2010)의 연구뿐이다. 그러나 김경년(2010)의 연구도 전문계고 고졸 취업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인을 설정하였다. 먼저, 이전 연구들에서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가구수입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하는 고졸 취업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직업 관련 수업, 진로지도 및 취업활동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어서 고등학교 직업 관련 수업, 직업체험, 진로지도, 취업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ascual, 2000; White & Killeen, 2002; 강순희, 2013). 더불어 성별과 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졸 취업자에게도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김경년, 2010), 학교 계열에 따라 지역이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류장수·조장식, 2016). 마지막으로, 취업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분석할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변량 표본선택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실증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이하 ‘KEEPⅡ’)」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Ⅰ」은 12차(2015년) 조사를 끝으로 종료되었고, KEEPⅡ는

2016년부터 새롭게 조사되는 자료이다. KEEPⅡ는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대한 중장기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016년 416개 학교, 1,974명의 담임교사, 10,558명의 학생, 10,517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 1차 추적조사, 2019년에는 2차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2016년)의 학생·가구 데이터, 2차 연도(2018), 3차 연도(2019)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표본 10,558명 중 3차 연도 무응답 결측치 2,073명과 설명변수 무응답 결측치 1,622명을 제외한 6,863명을 전체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고졸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1,767명 중 수입을 목적으로 임시로 일하고 있는 775명(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992명이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여부이다. 이는 고졸 취업자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거주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고졸 취업자의 2016년 거주지역과 2018년 거주지역이 같으면 0, 다르면 1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개인특성, 학교특성, 지역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 남성보호자 학력, 가구수입, 고등학교 성적, 자격증 개수를 사용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 성적은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내신이 1등급이면 9, 9등급이면 1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2016년도 고등학교 재학 중 거주지역을 사용하였다. 2016년 자료의 경우 세종이 충남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별 자료에서 세종을 충남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부 광역시의 표본이 적게 나타나므로 서울·경기·인천을 수도권으로, 그 외 광역시를 지방광역시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표본 수는 매우 적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

〈표 1〉 변수의 구성

변수		변수 설명	유형	
중속 변수	지역이동 여부	고졸 취업자 중 2016년도 거주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의 일치 여부(1=다름, 0=같음)	더미	
	취업 여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임금근로자(1=취업, 0=미취업)	더미	
독립 변수	개인특성	성별	0=여자, 1=남성	더미
		남성보호자 교육 연수	남성보호자의 교육 연수	연속형
		가구수입	ln(남성보호자 월수입+여성보호자 월수입)	연속형
		고등학교 성적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국·영·수 내신 등급 평균	연속형
		자격증 개수	보유 자격증 개수	연속형
	지역특성	고등학교 재학 중 거주 지역	0=서울·경기·인천, 1=지방광역시, 2=강원, 3=충북, 4=충남/세종, 5=전북, 6=전남, 7=경북, 8=경남	범주형
		기대소득	기존 거주지역 대비 이주 고려지역의 기대소득 차이	연속형
		문화시설 수	기존 거주지역 대비 이주 고려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 차이	연속형
	고등학교 특성	마이스터고	0=마이스터고 아님, 1=마이스터고	더미
		학교 유형	0=일반고, 1=자율고, 2=특성화고, 3=특목고, 4=마이스터고	범주형
고등학교 계열		0=일반계고, 1=공고, 2=상고, 3=기타 특성화고	범주형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특강’, ‘현장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진로 캠프’ 경험 여부(0=경험하지 않음, 1=경험함)	더미	
전문교과에 대한 평가		‘전문교과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문교과(전공) 수업을 위한 실습실 및 기자재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전문교과 수업 시간의 이론 및 실습수업만으로 취업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다’ (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범주형	
취업지도 경험 여부	‘취업상담’, ‘채용기업 정보제공’, ‘구직활동 지도’, ‘취업박람회/채용설명회’, ‘취업캠프’, ‘졸업생 멘토링’, ‘취업처 연계’ 경험 여부 (0=경험하지 않음, 1=경험함)	더미		

2) 우리나라 청년층의 일상적인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시·도를 넘지 않으며,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청년 노동력의 수요·공급이 상호의존적인 구조로서 단일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강동우, 2019).

지역이동에 따른 편익에 대한 변수로 ‘지역이동에 따른 기대소득’과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활용하였고,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내생성을 고려하여 2016년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먼저, ‘지역이동에 따른 기대소득’은 기존 거주지와 이주 고려 지역의 기대소득 차이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기대소득은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의 평균임금과 취업률에 의해 결정된다(김현아, 2008). ‘지역이동에 따른 기대소득’ 산출에는 2016년 상·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반기별로 지역별 평균임금과 고용률을 곱하여 기대소득을 산출한 후, 상반기와 하반기 기대소득의 평균값을 ‘지역이동에 따른 기대소득’ 도출에 활용하였다(강동우, 2019).³⁾ 한편 지역의 인프라 수준, 지방 공공제도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강동우, 2019).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프라 수준 또는 지방 공공제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통계청 KOSIS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이동에 따른 기대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주지역과 이주 고려지역의 차이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학교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계열,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전문교과(전공 수업)에 대한 평가, 취업지도 경험 여부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변수 설명과 유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취업과 지역이동의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취업자만을 선택하여 분석한다면 미취업자의 표본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표본선택에 따른 편익(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2차 이상 일련의 선택에 따른 표본의 선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박성익·조장식, 2019).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3) 본 연구의 기대소득 추정방법과 자료는 강동우(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기존 거주 지역 대비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의 상대적인 기대소득은 김현아(2008)의 연구와 같이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의 값을 기존 거주지역의 값으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선택모형과 결과모형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여부에 대한 모형이 선택모형으로, 지역이동 여부에 대한 모형이 결과모형으로 구성된다. 우선 선택모형은 식 (1)과 같다. $y_{2,i}^*$ 는 취업 여부에 대한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 z_i 와 미관측 오차항 $\epsilon_{2,i}$ 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결과모형은 [식 2]와 같으며, $y_{1,i}^*$ 는 지역이동 여부에 대한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 βx_i 와 미관측 오차항 $\epsilon_{1,i}$ 로 구성된다.

$$y_{2,i}^* = \gamma z_i + \epsilon_{2,i}, \quad y_{2,i} = \begin{cases} 1, & y_{2,i}^* \geq 1 \text{인 경우: 취업} \\ 0, & y_{2,i}^* < 0 \text{인 경우: 미취업} \end{cases} \quad (1)$$

$$y_{1,i}^* = \beta x_i + \epsilon_{1,i}, \quad y_{1,i} = \begin{cases} 1, & y_{1,i}^* \geq 1 \text{인 경우: 거주지역 이동} \\ 0, & y_{1,i}^* < 0 \text{인 경우: 거주지역 미이동} \end{cases} \quad (2)$$

이때 미관측 오차항 $\epsilon_{1,i}$ 와 $\epsilon_{2,i}$ 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두 오차항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

$$\begin{aligned} \epsilon_{1,i} &\sim N(0,1) \\ \epsilon_{2,i} &\sim N(0,1) \\ \text{corr}(\epsilon_{1,i}, \epsilon_{2,i}) &= \rho \end{aligned}$$

선택모형과 결과모형을 바탕으로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확률, 기존지역 거주 확률 및 미취업 확률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r(y_{1,i} = 1, y_{2,i} = 1) &= \Pr(y_{1,i}^* \geq 0, y_{2,i}^* \geq 0) = \Pr(\epsilon_{1,i} \geq -\beta x_i, \epsilon_{2,i} \geq -\gamma z_i) \\ &= \Phi_2(-\beta x_i, -\gamma z_i, \rho) \\ \Pr(y_{1,i} = 0, y_{2,i} = 1) &= \Pr(y_{1,i}^* < 0, y_{2,i}^* \geq 0) = \Pr(\epsilon_{1,i} < -\beta x_i, \epsilon_{2,i} \geq -\gamma z_i) \\ &= \Phi_2(-\beta x_i, -\gamma z_i, -\rho) \\ \Pr(y_{2,i} = 0) &= \Pr(y_{2,i}^* < 0) = \Pr(\epsilon_{2,i} < \gamma z_i) = \Phi_1(-\gamma z_i) \\ &= 1 - \Phi_1(\gamma z_i) \end{aligned}$$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확률을 바탕으로 로그가능도함수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최대가능도추정량(MLE)을 구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ln L &= \sum_{y_{1,i}=1, y_{2,i}=1} \ln \Phi_2(-\beta x_i, -\gamma z_i, \rho) + \sum_{y_{1,i}=0, y_{2,i}=1} \ln \Phi_2(-\beta x_i, \gamma z_i, -\rho) \\ &+ \sum_{y_{2,i}=0} \ln [1 - \Phi_1(\gamma z_i)] \end{aligned}$$

위 식을 통해 도출된 β , γ , ρ 는 최적화된 계수를 의미하며, ρ 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일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 시 통계적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Maddala, 1983; 박성익·조장식, 2019).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⁴⁾

<표 2>는 지역이동 여부와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값과 t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개인특성 변수 중 지역이동 여부에 따라 보호자 학력, 성별, 가구 수입,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이동한 집단이 이동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성 비율, 보호자 학력, 가구수입,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성별, 보호자 학력, 가구수입, 성적, 자격증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집단이 미취업 집단보다 보호자 학력, 가구수입, 성적은 낮게, 남성 비율, 자격증 수는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 변수 중 기존 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이동 여부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강원, 전북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에 대한 기대는 지역이동 집단이 미이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대소득의 경우 지역이동 집단이 미이동 집단보다, 취업 집단이 미취업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의 경우 지역이동 여부와 취업 여부에 따라 학교 유형, 학교 계열,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 여부, 전문교과 취업지도 경험 여부에서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지면 한계상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기초 통계량

(단위: 명, 년, 원, 점)

변수		N	취업 여부			지역이동 여부			
			취업	미취업	t-검증	이동	미이동	t-검증	
개인특성	성별	남성(=1)	3,440	0.57	0.49	-4.9355***	0.52	0.49	-1.7093*
		여성(=0)	3,423						
	보호자 학력	6,863	13.40	14.13	8.1920***	14.20	13.94	-3.8745***	
	가구수입	6,863	15.18	15.34	8.8523***	15.35	15.30	-3.6918***	
	성적	6,863	5.14	5.74	8.9361***	5.83	5.57	-5.2144***	
보유 자격증 수	6,863	2.72	0.72	-34.8074***	0.97	1.04	1.5174		
지역특성	기존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862	0.34	0.43	5.1390***	0.27	0.49	17.8138***
		지역 광역시	1,543	0.23	0.22	-0.3264	0.21	0.23	1.8359*
		강원	208	0.04	0.03	-0.9881	0.04	0.03	-3.0896***
		충북	291	0.06	0.04	-3.3990***	0.06	0.04	-3.9683***
		충남	364	0.07	0.05	-2.6641***	0.08	0.04	-7.4547***
		전북	333	0.05	0.05	-0.6178	0.06	0.04	-3.7952***
		전남	334	0.07	0.05	-2.6689***	0.09	0.03	-10.5689***
		경북	431	0.08	0.06	-2.9307***	0.11	0.04	-11.3754***
		경남	497	0.06	0.07	1.8330**	0.08	0.07	-2.1493**
	기대 편익	문화시설 수	6,863	1.02	1.04	0.8596	1.10	1.00	-8.3983***
	기대소득	6,863	1.04	1.00	-7.3908***	1.03	1.00	-7.7936***	
학교특성	학교 유형	일반고	3,712	0.09	0.62	33.0383***	0.53	0.54	0.8937
		자율고	397	0.01	0.07	6.9912***	0.06	0.05	-1.7567*
		특성화고	1,532	0.44	0.19	-18.2796***	0.15	0.26	10.8029***
		특목고	570	0.04	0.09	5.2829***	0.12	0.06	-8.6099***
		마이스터고	652	0.42	0.04	-41.7927***	0.13	0.08	-7.3015***
	학교 계열	인문계	4,679	0.14	0.77	44.8596***	0.72	0.66	-5.0070***
		공고	1,332	0.59	0.13	-37.5948***	0.20	0.19	-0.6494
		상고	625	0.20	0.07	-12.7536***	0.05	0.11	9.1549***
		기타 특성화고	227	0.07	0.03	-6.7761***	0.03	0.03	-0.1856
	진로 교육 및 활동 경험	진로와 직업 수업	6,863	0.83	0.80	-2.2319**	0.79	0.82	3.2981***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6,863	0.72	0.71	-0.5339	0.69	0.73	3.4343***
		진로심리검사	6,863	0.80	0.84	2.9241***	0.84	0.83	-0.5584
		진로상담	6,863	0.81	0.79	-1.5284	0.82	0.79	-2.9808***
		진로 동아리	6,863	0.36	0.31	-3.0873***	0.29	0.33	3.6910***
		직업인 멘토특강	6,863	0.69	0.63	-3.9359***	0.63	0.64	0.7835
		현장견학	6,863	0.69	0.47	-12.8985***	0.52	0.49	-2.4143**
		학과체험	6,863	0.51	0.38	-7.8038***	0.41	0.39	-1.8832*
현장 직업체험		6,863	0.51	0.25	-17.3154***	0.27	0.29	1.8687*	
직업 실무체험		6,863	0.43	0.16	-20.6261***	0.18	0.20	2.0740**	
진로캠프	6,863	0.36	0.21	-10.3185***	0.23	0.23	-0.2510		

<표 2>의 계속

변수		N	취업 여부			지역이동 여부		
			취업	미취업	t-검증	이동	미이동	t-검증
학 교 특 성	전문교과에 대한 평가							
	적극적 수업참여	2,184	4.01	3.87	-4.3856***	4.00	3.89	-2.9625***
	충분한 실습실 기자재	2,184	3.99	3.91	-2.2086**	3.98	3.92	-1.6580*
	전공지식 및 기술 습득	2,184	3.69	3.67	-0.4545	3.72	3.66	-1.5056
	취업상담	2,184	0.90	0.79	-6.5129***	0.86	0.82	-2.6330***
	채용기업 정보제공	2,184	0.88	0.76	-7.1293***	0.85	0.79	-2.9909***
	구직활동 지도	2,184	0.88	0.77	-6.7432***	0.84	0.80	-1.7772*
	취업박람회 채용 설명회	2,184	0.73	0.63	-4.8459***	0.66	0.67	0.3803
	취업캠프	2,184	0.41	0.34	-3.5677***	0.41	0.35	-2.5528**
	졸업생 멘토링	2,184	0.63	0.56	-3.0078***	0.59	0.59	0.0635
취업처 연계	2,184	0.70	0.55	-7.1728***	0.64	0.60	-1.7607*	

주: *** p<0.01, ** p<0.05, * p<0.1.

2.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요인

<표 3>은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1단계 선택 모형 분석대상은 전체 6,863명이며,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1단계의 취업 확률을 고려하여 992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ρ 값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면 통계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설명변수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 선택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개인특성은 성별, 가구수입, 자격증이었다. 여성보다 남성,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작게 나타났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컸다.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가구수입과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구 수입이 많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특성 중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1단계 선택모형에서 지역광역시,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지역광역시, 강원, 충북 등의 모든 거주지역, 인

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 기대소득이었다.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서울·인천·경기에 비하여 모든 지역에서 인력유출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거주지역 대비 이주 고려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많을수록,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컸다.

〈표 3〉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요인 분석결과(전체)

모형 1 (전체)		선택모형	결과모형	
		1단계 (취업 여부=1)	2단계 (지역 이동=1)	
개인 특성	성별	-0.166*** (0.0486)	-0.0621 (0.0960)	
	보호자 학력	-0.0109 (0.00953)	0.0197 (0.0175)	
	가구수입	-0.0901** (0.0449)	0.187** (0.0812)	
	성적	-0.0161 (0.0105)	0.0332* (0.0174)	
	보유 자격증 수	0.0434*** (0.0123)	-0.0261 (0.0201)	
지역 특성	2016년도 거주 지역 (0: 서울· 경기·인천)	지역광역시	-0.212*** (0.0640)	0.229* (0.125)
		강원	-0.0838 (0.134)	0.456* (0.255)
		충북	-0.0276 (0.109)	1.000*** (0.184)
		충남	-0.0632 (0.105)	0.832*** (0.174)
		전북	-0.00805 (0.109)	0.863*** (0.217)
		전남	-0.146 (0.106)	0.661*** (0.178)
		경북	0.00448 (0.0937)	1.072*** (0.172)
		경남	-0.0479 (0.0977)	0.535*** (0.178)
	문화시설 수		0.368*** (0.0962)	
	기대소득		2.302*** (0.367)	

〈표 3〉의 계속

모형 1 (전체)		선택모형		
		1단계 (취업 여부=1)	2단계 (지역 이동=1)	
학교 특성	학교유형 (0: 일반고)	자율고	0.0704 (0.140)	
		특성화고	1.228*** (0.0658)	
		특목고	0.543*** (0.0906)	
		마이스터고	2.197*** (0.0861)	
	학교계열 (0: 일반계)	공고		-0.713*** (0.188)
		상고		-0.942*** (0.166)
		기타 특성화고		-0.311 (0.212)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	진로와 직업 수업	0.0135 (0.0698)	0.0480 (0.123)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0.0803 (0.0612)	0.0208 (0.106)
		진로심리검사	-0.128* (0.0674)	0.0948 (0.116)
		진로상담	-0.00949 (0.0621)	0.166 (0.112)
		진로동아리	0.0837 (0.0526)	-0.117 (0.0932)
		직업인 멘토특강	-0.00106 (0.0562)	-0.0325 (0.100)
		현장견학	-0.0287 (0.0562)	-0.0193 (0.101)
		현장 직업체험	0.0559 (0.0540)	0.0856 (0.0951)
		직업 실무체험	0.188*** (0.0601)	-0.217** (0.0991)
		진로캠프	0.0342 (0.0568)	-0.0304 (0.0956)
	ρ		-0.6231679***	
	LR χ^2		19.45***	
관측 수(censored/uncensored)		6,863 (5,871/992)		

주: 1) 괄호 안은 s.e, 유의수준은 *** p<0.01, ** p<0.05, * p<0.1.

마지막으로 학교특성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를 살펴보면, 1단계 선택모형에서 학교유형, 진로심리검사, 직업 실무체험 등이다. 1단계 선택모형에서 일반고보다 특성화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진로심리검사 경험이 있으면 취업 가능성이 작고, 직업 실무체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인문계 대비 공고·상고일 경우 지역이동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여부에서는 직업 실무체험만 지역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직업 실무체험 경험이 많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작게 나타났다.

<표 4>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1단계 선택모형에서는 전체 2,184명,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1단계의 취업 확률을 고려하여 851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ρ 값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활용이 적절하였다.

먼저 개인특성 변수 중 1단계 선택모형에서는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가구수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컸다.

지역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1단계 결과모형에서는 지역 광역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지역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도권 대비 모든 지역에서 지역이동 가능성이 컸다. 기대 편익을 나타내는 변수에서는 기존 거주지역 대비 이주 고려 지역의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많을수록 지역이동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특성의 경우 1단계 선택모형에서 마이스터고 여부,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적극적 수업참여, 취업상담, 구직활동 경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컸으며, 진로동아리 경험, 취업상담 경험, 구직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컸다. 반면, 진로심리검사 또는 진로상담 경험이 있을 때 취업 가능성이 작게 나타났다. 2단계 결과모형에서는 기타 특성화고보다 공고 또는 상고 졸업생의 지역이동 가능성이 작지만, 전문교과목

에서 전공지식 및 기술 습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표 4〉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요인 분석결과(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모형 2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선택모형	결과모형	
		1단계 (취업 여부=1)	2단계 (지역 이동=1)	
개 인 특 성	성별	-0.328*** (0.0701)	-0.0171 (0.116)	
	보호자 학력	0.00399 (0.0125)	0.00968 (0.0195)	
	가구수입	-0.0800 (0.0581)	0.172* (0.0917)	
	성적	0.00414 (0.0127)	0.0239 (0.0195)	
	보유 자격증 수	0.0131 (0.0135)	-0.00840 (0.0211)	
지 역 특 성	2016년도 거주지역 (0: 서울· 경기·인천)	지역광역시	-0.197** (0.0827)	0.118 (0.141)
		강원	-0.258 (0.178)	0.553* (0.297)
		충북	0.0524 (0.136)	1.093*** (0.209)
		충남	-0.0641 (0.132)	0.835*** (0.194)
		전북	0.0222 (0.147)	1.035*** (0.271)
		전남	-0.158 (0.124)	0.625*** (0.193)
		경북	0.0411 (0.117)	1.092*** (0.193)
		경남	-0.145 (0.135)	0.546** (0.218)
	문화시설 수		0.489*** (0.107)	
	기대소득		2.633*** (0.415)	

<표 4>의 계속

모형 2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선택모형	결과모형	
			1단계 (취업 여부=1)	2단계 (지역 이동=1)	
학교특성	마이스터고 여부		0.989*** (0.0794)		
	학교계열 (0: 기타 특성화고)	상고	-0.0656 (0.109)	-0.648*** (0.197)	
		공고	-0.0296 (0.110)	-0.408** (0.170)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 여부	진로와 직업 수업		0.0116 (0.0968)	0.173 (0.147)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0.0160 (0.0797)	-0.0627 (0.119)
		진로심리검사		-0.261*** (0.0873)	0.164 (0.131)
		진로상담		-0.180** (0.0850)	0.194 (0.132)
		진로동아리		0.141** (0.0666)	-0.0716 (0.102)
		직업인 멘토특강		-0.0282 (0.0768)	-0.142 (0.121)
		현장견학		-0.104 (0.0748)	-0.0130 (0.116)
		현장 직업체험		0.0785 (0.0685)	0.0987 (0.106)
직업 실무체험		0.0608 (0.0706)	-0.156 (0.108)		
진로캠프		0.0451 (0.0748)	-0.0453 (0.117)		
전문 교과	적극적 수업참여		0.0976** (0.0465)	-0.0581 (0.0730)	
	충분한 기자재 및 실습설		0.00544 (0.0475)	0.0227 (0.0707)	
	전공지식 및 기술습득		-0.0562 (0.0420)	0.104* (0.0616)	
취업 지도 경험	취업상담		0.184* (0.0982)	-0.0614 (0.170)	
	채용기업 정보제공		0.0890 (0.0986)	0.105 (0.175)	
	구직활동 지도		0.228** (0.101)	-0.0518 (0.172)	
	취업박람회 및 채용설 명회		0.0159 (0.0760)	-0.0474 (0.126)	
	취업캠프		-0.0156 (0.0760)	-0.0516 (0.119)	
	졸업생 멘토링		0.0383 (0.0708)	0.0697 (0.112)	
	취업처 연계		0.0967 (0.0724)	-0.0367 (0.115)	
ρ			-.6495129***		
LR χ^2			17.12***		
관측 수(censored/uncensored)			2,184 (1,333/851)		

주: 괄호 안은 s.e, 유의 수준은 *** p<0.01, ** p<0.05, * p<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중 성적과 가구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적이 높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컸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졸 인재가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졸 취업자가 지역이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구수입이 많은 가정일수록 주거비용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기존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이면 수도권보다 지역이동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존 거주지역 대비 지역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의 기대소득이 높을수록,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많을수록 지역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기대소득과 지역의 인프라 정도에 따라 지역이동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다(김현아 2008, 이찬영·이흥후, 2016; 강동우, 2019).

셋째, 학교 계열에 따른 지역이동 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 인문계고 졸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공고·상고 졸업자의 지역이동 가능성이 작게 나타났다. 한편 진로, 취업, 전문교과 등에 대한 경험 여부와 만족도의 경우 취업 여부에는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역이동 여부에는 대다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V. 결 론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청년층이 떠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인구의 전출을 억제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

인을 파악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청년 정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 지역특성, 고등학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높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 둘째,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청년 노동력의 유출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지역이동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컸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 취업, 전문교과 등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지역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 고졸 청년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의 생애주기를 취업 전, 취업 과정, 취업 이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취업 및 지역정착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유한구 외, 2019). 생애주기에 부합하도록 고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고졸 취업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과 질, 그리고 지역적 인프라 차이가 지역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전 단계에서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에 지역 고졸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향유하도록 지역 문화시설 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유치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취업 과정에서는 학교의 계열 및 전공에 맞는 관련 기업들을 학교와 연결하여 고졸 취업자가 자신의 전공 및 계열에 맞는 지역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업계고 모형에서 취업상담 및 구직활동 지도 여부가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취업상담 및 지도 시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취업 이후에는 고졸 취업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과 같은 주거비용,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타지역에서 유입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역산업으로의 유입과 정착을 저해하므로, 외지에서 유입하는 고졸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내 공동 기숙시설을 유치하여 고졸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동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170: 47~60.
- 강순희(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 (3): 91~123.
- 김경년(2010). 「지역 산업수요와 지역이동: 전문고 졸업생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3 (2): 53~89.
- 김안국(2005). 「대졸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노동경제논집』 28 (3): 39~76.
- 김유빈·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아(2008).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 (2): 75~103.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 (2): 1~27.
- 류장수·조장식(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 (2): 199~218.
- 문남철(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 (4): 581~593.
- 문영만·홍장표(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 (2): 165~187.
- 박성익·조장식(2019).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인력유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0 (1): 23~31.
- 박천수(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대응방안」. 한국산업인력공

- 단 중앙고용정보원장 동향분석팀 [편]. 『(2005) 한국의 고용구조』. 서울: 중앙고용정보원장 동향분석팀. pp.356~375.
- 심재현·김의준(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pp.37~51.
- 안수란(2019).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사업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019 (11) : 59~70.
- 유한구·조희경·송선혜(2019).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책모델 기본계획 수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윤규·김유빈·오선정·강동우·김세움(2017). 『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윤형한(2020). 「[이슈 분석]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과제」. 『THE HRD REVIEW』 23 (3).
- 이상립(2014). 「시·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건복지포럼』 2014 (12) : 49~60.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_____(2019).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제20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저출산 시대의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쌍철·엄문영(2014). 『특성화고 취업의 특징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징 분석』.
-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 (4) : 143~169.
- 전재식(2002).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5 (1) : 29~52.
- 한국은행(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Borjas, G. J., S. G. Bronars, and S. J. Trejo(1992). “Self-selection and internal

-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32 (2) : 159~185.
- Doeringer, P. B. and M. J.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 : Heath.
- Maddala, G. 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cual, A. S.(2000). “Tackling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 Monitoring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Brussels.
- Thurow, L. C.(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 66.
- White. M. and J. Killeen(2002). “The effect of careers guidance for employed adults on continuing education : Assessing the importance of attitudinal information.”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165 : 83~95.

Determinants of Regional Movements for High School Graduated Employees

Lee Youngseok · Song Seonhye

With the rising trend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al.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areas are facing extinction due to the continued outflow of young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boost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are all the more important in that they can not only resolve job-education mismatches but also curb the transfer of young people from non-metropolitan regions and boost local industrie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migr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high-performing local talent will be outflow of talented people from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ir first job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Second, the outflow of youth labor from non-capital areas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the metropolitan area.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ssibility of local relocation depending on the high school category, and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 possibility of regional settlement is high. Finally, career paths, employment, and specialized subjects conducted by schools affect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but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ssibility of regional movement.

Keywords : high school graduates employees, regional movements, regional annihilation,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s activation policy, korea education employment panel survey II